

2/28(월) 스가랴 묵상 17

스가랴 9: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의 내용은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주인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의 구조는 1-8절은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9-1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선지서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따릅니다(예, 이사야서 구조: 1-39장 심판, 40-66장 구원).

이방에 대한 심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난 사건을 뜻하는 것인지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당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두로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통한 이방에 대한 심판으로 추정합니다(“여호와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집(유다의 성전)이 다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IVP 성경주석 구약, 1202). 이러한 사실 때문에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를 말라기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 하나님의 눈이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치 열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EVS Bible, Zech. 9:1, “..For the Lord has an eye on mankind and on all the tribes of Israel.”). 이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출 3: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지켜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언급되는 이방 나라의 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 ‘하맛, 두로와 시돈’ 그리고 5-6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바벨론).’ 이는 세 개의 나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수리아와 베니게에 대한 심판이고 후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중에서 베니게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의 특징은 지혜로움입니다(2절하,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 지혜의 증거들이 3절에 나타납니다(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당시 두로는 섬나라로서 그들의 약점을 도리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서 전쟁에서 방어력을 갖추고 또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혜도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일 뿐입니다(계 4: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음으로 블레셋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의 교만입니다(6-7상,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본문 5-7절에서는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 중에 가드를 제외한 네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교만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고 특히 영적으로 타락시킨 이들로써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자 사상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다윗 시대의 여부스처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삼하 5:6-10). 이는 당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일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연상케 합니다(예, 기생 라합, 기브온 거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집을 적군으로부터 막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눈이 그의 백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마치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수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신다는 말씀은 아마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두 가지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큰 숙제가 끝나고 유다 백성들은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말씀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전의 포로 경험을 통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언제든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어난 줄로 생각할 때에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체셔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지역 선교를 위한 기도:** IRIS(난민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